

코스 : **동 남 산**

매 월 2일요일 09:30 ~ 16:00

출 발 : 통일전 주차장

가는곳 : 지암골, 국사골

동남산코스

금오봉과 고위봉에서 뻗어 내린 60여개의 능선과 골짜기들을 남산이라 하며, 서쪽면을 서남산이라 하고, 동쪽면을 동남산이라 부른다. 서남산은 거치른 바위가 많아 경사가 가파르고 질 좋은 바위가 많아 드러난 마애불과 절터가 많지만, 동남산은 소나무 우거진 깊은 골짜기 속 곳곳에 절터와 탑·불상이 숨어 있다. 북쪽 기슭의 불곡감실여래좌상을 비롯하여, 탑곡 마애불상군, 미륵곡 석조여래좌상과 마애불이 있고, 국사곡·지암곡에 이르러서는 기기묘묘한 바위들과 탑들이 골골이 숨어 만물상을 이루고 있으며, 오산곡, 승소곡, 천동곡 깊은 골에는 절터가 허다하고, 봉화곡 칠불암과 신선암에 이르러서는 기암절벽을 배경으로 하여 부처님의 선경을 이루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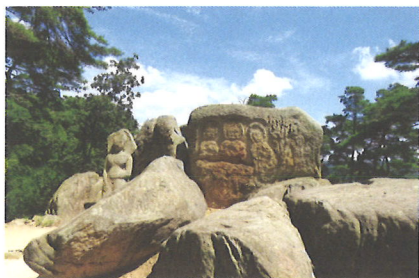
이곳이 바로 원효대사께서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에서 일컬은

高嶽巍巖은 智人所居요 碧松深谷은 行者所棲니라
 助響巖穴로 爲念佛堂하고 哀鳴鴨鳥로 爲歡心友니라
 높은 산 솟은 바위 맑은 이가 살 곳이요
 푸른 솔숲 깊은 골은 님의 의 처소로세
 울려주는 바위굴로 염불하는 도량 삼고
 슬피 우는 새소리로 마음 솟 벅 삼네. 가 아니겠는가?

동남산의 모든 답사는 통일전 주차장에서 시작되며, 주요한 답사길은 다음과 같다.

1. 불곡, 탑곡, 미륵곡
2. 일천바위능선을 올라 금오정으로
3. 철와골에서 금오정으로
4. 국사곡 삼층석탑을 지나 금오정으로
5. 지바위골의 탑을 찾아 사자봉으로
6. 순환도로를 따라 금오봉으로
7. 칠불암 가는 길

📍 통일전주차장 : 경주시 칠불암길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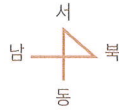
- 22 ○ 동남산코스
- 24 ○ 쉽게 찾아가는 동남산코스
- 73 ④ 불곡마애여래좌상
- 75 ④ 옥룡암과 탑곡마애불상군
- 76 ⑤ 보리사 마애석불
- 77 ⑤ 미륵곡 석조여래좌상
- 78 ⑤ 경북천년숲정원
- 78 ⑤ 화랑교육원과 석조감실
- 79 ⑤ 헌강왕릉
- 79 ⑤ 정강왕릉
- 80 ⑤ 통일전
- 80 ⑤ 서출지
- 82 ⑤ 남산동 동서 삼층석탑
- 83 ⑤ 염불사지
- 84 ⑥ 국사곡 삼층석탑
- 85 ⑥ 굴바위 절터
- 85 ⑥ 국사곡 제7사지
- 86 ⑥ 오산곡 마애여래상
- 86 ⑥ 지암곡 제2사지 삼층석탑
- 87 ⑥ 지암곡 제3사지 삼층석탑
- 94 ⑦ 금오정
- 94 ⑦ 상사바위
- 95 ⑦ 사자봉
- 95 ⑦ 남산부석
- 88 ⑥ 승소곡 절터
- 88 ⑥ 천동곡 천동탑
- 89 ⑥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
- 90 ⑥ 칠불암 마애불상군



쉽게 찾아가는 동남산코스

- 도로
- 도로(차량 금지)
- 답사길(산길)





○ 통일전⁵⁶

남산은 화랑들이 몸과 마음을 닦던 성지와도 같은 산이다. 신라는 660년 백제를 병합하고, 668년 고구려를 멸하였으며, 676년 이 땅에 주둔하던 당나라 군사를 완전히 몰아냄으로써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단일민족국가를 형성하고 삼국문화를 융합하여 통일신라 문화의 황금시대를 열었다.

통일전은 1977년 삼국통일의 역사적 성업을 완수한 태종무열왕, 문무왕, 김유신장군의 업적을 길이 찬양하고 화랑의 호국정신을 오늘에 이어받아 발전하는 조국의 정신적 지주로 삼고자 조성되었다. 세 통일 영웅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고, 회랑에는 삼국통일의 기록화가 전시되어있다. 또 삼국통일기념비와 태종무열왕, 문무왕, 김유신 장군의 사적비가 있다.

무엇보다도 남산의 동쪽 벌판이 시원하게 내려다보여 좋다. 은행나무 가로수가 노랗게 물드는 가을이면 더없이 아름답다.

📍 경주시 칠불암길 6



○ 서출지⁵⁷

사적 138호

통일전주차장 남쪽에 조그마한 연못이 있다. 연못가에서 배롱나무 꽃이 만발할 때 남산과 함께 바라보는 이요당(二樂堂)의 경치는 한 폭의 수채화다. 연못에는 연꽃이 가득 핀다. 이 연못에는 삼국유사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온다.

21대 비류왕(소지왕)이 즉위한 지 10년 되던 해(488) 정월에 왕궁을 명활성에서 월성으로 옮겼다. 신하들을 거느리고 천천정(天泉亭)에 행차할 때 까마귀와 쥐가 와서 울었다. 쥐가 사냥의 말로 이르기를, “이 까마귀 가는 곳을 찾아 가 보시오.” 하였다.

왕은 기사(騎士)에게 명하여 까마귀를 따라가게 하였다. 삼산 동쪽 피촌(양파사촌)에 이르러, 돼지 두 마리가 싸우고 있는 것을 구경하다가, 문득 까마귀가 날아간 곳을 잃어버렸다. 이때 한 늙은이가 못 속에서 나와 글을 올리니, 결봉에 쓰여 있기를 「떼어보면 두 사람이 죽는 것이고, 떼어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는 것이다」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두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떼어보지 않고 한 사람만 죽는 것이 낫겠다.” 하니, 일관(日官)이 아뢰기를, “두 사람은 서민이요, 한 사람은 왕입니다” 하였다. 왕이 그걸다고 여겨 봉투를 열어보니, 그 속에 「거문고잡을 소라」고 쓰여 있었다. 왕이 궁중으로 돌아와 거문고잡을 소니, 내전의 분수승(焚修僧)과 궁주(宮主)가 몰래 간통(奸通)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처형하였다. 이로부터 나라 풍속에 해마다 정월 상해(上亥), 상자(上子), 상오일(上午日)에는 모든 일을 조심하고 꺼려 함부로 움직이지 않으며, 정월 16일을 오기일(烏忌日)이라 하여 찰밥을 지어 제사 지내니, 지금까지도 이를 행하고 있다. 이후 이 못을 서출지(書出池)라고 이름하였다.

이 이야기는 신라의 전통적인 토속 신앙과 불교의 갈등, 불교의 수용을 둘러싼 신라 왕실과 귀족 집단의 대립, 내지는 소지왕에 반대하는 왕실 내부 세력에 대한 제거를 상징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이 연못에 1664년 임적선생이 이요당(二樂堂)을 짓고 연꽃과 배롱나무를 심어 자연을 즐기며, 선비의 고고한 심성을 수련했다.

봄에는 매화, 목련, 벚꽃, 개나리, 진달래 등이 어우러지고, 여름에는 백일홍과 연꽃이 만발하고, 가을에는 노란 은행나무잎과 단풍이 아름답다. 계절에 따라 변하는 아름다운 경치를 즐겨보자. 연못 주변에는 조명을 더하여 밤에도 아름답다.

경주시 칠불암길 6



○ 남산동 동서 삼층석탑 (양피사지)⁵⁸⁾

보물 124호



『삼국유사』의 엄불스님 이야기에 등장하는 양피사지로 추정되는 곳에 동서로 삼층석탑 2기가 서 있다.

서탑은 이중기단으로 된 일반적인 양식으로, 석가탑에 버금가는 조화와 균형미를 갖춘 아름다운 탑이다. 상층 기단에는 팔부중상을 조각했다. 팔부중은 본래 힌두의 신들이었지만 불교에 수용되어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신이 되었다. 남면 오른쪽의 건달바상은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는 신인데 사자탈을 쓰고 있으며, 왼쪽 아수라 상은 얼굴이 셋이고 팔이 여덟개로 손마다 무기를 들고 있으며 위로 올려든 손에는 해와 달이 들려있고, 배 앞에 있는 손에는 해골이 들려 있다.

동면 왼쪽의 아차상은 귀신 나라의 왕으로 엄주를 입에 물고 손으로 헤아리고 있다. 오른쪽은 용왕으로 머리에 용관을 썼고 손에는 여의주가 들려 있다. 북면에는 얼굴 좌우에 소머리와 말머리가 달려있는 긴나라와 뱀의 신 마후라가가 새겨져 있으며, 서면에는 금강저를 들고 있는 천(天)과 주둥이가 독수리 부리로 된 새의 신 가루다가 새겨져 있어 보는 재미를 더한다.

동탑은 광대한 이중의 지대석 위에 세운 전탑의 양식을 띠고 있는 모전석탑이다. 동탑은 곳곳하고 힘차게 솟아있어 남성답고 서탑은 부드럽고 화려하여 여성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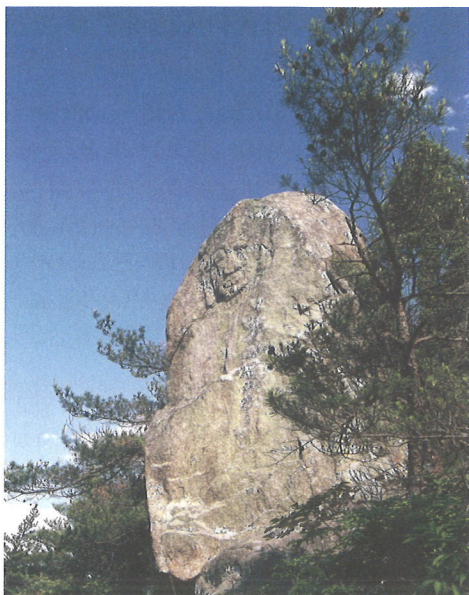
이 탑은 불국사의 석가탑과 다보탑처럼 형식을 달리하는 쌍탑으로 알려져 왔으나, 양쪽 탑의 지면의 높이가 다르고, 동서축이 달라서 별도의 탑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 오산곡 마애여래상⁶³

남산동 마을에서 국립공원 초소까지의 도로 오르막 오른쪽 숲속에 등성등성 숨어 있는 바위들은 모두 고인돌이다. 40여 년 전에는 부근에 30여기가 있었으나 지금은 5~6기 정도만 남아 있다.

국립공원 초소에서 350m 정도 올라가면 왼쪽 개울 건너 산중턱에 높이 5m, 너비 2.5m 정도 되는 바위가 하나 솟아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보름달처럼 둥근 불상 얼굴이 보인다. 얼굴은 둥글고, 코는 크고 납작하며, 눈은 두툼하고, 입은 두텁고 서투른 솜씨이지만 친근감이 가는 불상이다. 얼굴만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불상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모습이 토속적이고 소박하며 친근감이 가는 불상이다. 이 불상이 있는 자리에는 경사가 가파르고 절터는 없다. 옛날 서라벌에서 언양 방면으로 넘어가는 고개 길목을 보살펴주시는 부처님으로 신앙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길에서 오른쪽 능선 넘어 골짜기에 개선사지가 있어 그 곳에서 바라보면 이 불상이 건너다보이므로 개선사 불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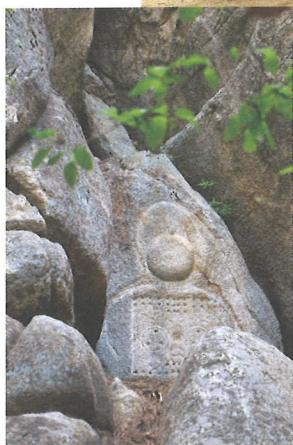
○ 지암곡 제2사지 삼층석탑⁶⁴

문화재 자료 600호

지암곡 입구에서 300m 정도 들어가면 길 아래 다랭이논의 흔적이 보이고 길은 갈라진다. 이정표에서 왼쪽 길을 따라 개울을 건너면 농바위 골이 된다. 골짜기 정상부에 농[衣籠]처럼 생긴 바위가 있다. 개울 옆 길을 150m 정도 올라가면 개울 건너에 길이 13m, 높이 4m 정도 되는 축대가 있다. 사방이 산으로 막혀 좋은 전망은 없으나, 명상하기에 좋은 아늑한 곳이다. 절터에서 70m정도 골짜기 안쪽 언덕위에 삼층석탑이 있다. 단층기단에 3층이며 옥개석 층급받침은 4단이다. 옥개석은 3매가 모두 남아 있었지만, 탑신석과 노반은 모두 없어졌던 것을 탑의 비례에 맞추어 새로운

돌을 보충하여 2003년 복원하였다. 이 탑은 기단부 각 면의 면석(面石)과 탕주(撐柱)·우주(隅柱)의 조합된 조각 형식이 달라 면마다 다른 모양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9세기에 조성되었다.





○ 지암곡 제3사지 삼층석탑⁶⁹

유형문화재 449호

2사지와와 갈림길의 이정표에서 100m 정도 본 계곡으로 올라가면 계곡에 솟아있는 거대한 바위가 있다. 이 바위가 작은 지바위이며, 건너편 능선에는 거대한 축대가 2단으로 보인다. 이 일대가 지암곡 1사지이다. 이 곳에는 조선시대 기와편들만 보이고 다른 유물은 없다.

이곳에서 계속해서 300m 정도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면 민묘 위 넓은 터에 삼층석탑이 보인다. 이 탑은 탑신과 옥개석이 모두 주변에 남아 있어 노반만 보충하여 2003년 복원하였다. 자연괴석을 기반으로 삼아 그 위에 2단의 탑신괴임을 놓고 삼층탑을 올렸다. 옥개석의 층급받침은 4단이며, 상승감이 크다.

탑에서 향 우측 숲속으로 들어가면 거대한 바위가 앞을 가로 막는다. 이 바위가 큰 지바위이며, 바위 앞면의 대발 속 경사지가 신라시대 절터이다. 앞을 바라보면 작봉(鵲峰) 너머 조양들이 펼쳐지고, 멀리 토함산 준봉이 조산(祖山)으로 솟아 있는 명당이다.

큰 지바위의 높은 중간부분 바위 사이 동굴에는 무속적인 마애조각이 있으나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또한 근대에 조각된 것으로 추정되는 무속적인 상 1구와 솜씨가 다소 떨어지는 불상 1구가 있다.

사자봉⁷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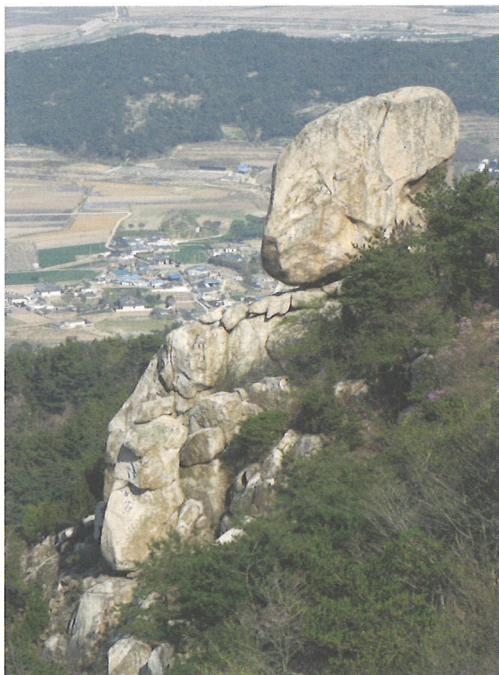
남산에서 가장 위엄 있는 봉우리이다. 사자봉(獅子峯)이라는 명문이 있으나 시대를 알 수 없다. 도로 준공시 국토건설단에 의해 팔각정이 세워 졌으나, 얼마 되지 않아 비락 맞아 무너졌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서라벌의 경관이 가장 아름답다.

도로는 경주남산을 관광화하기 위하여 국토건설단을 동원하여 1966년 11월 25일 완공하였다. 준공시 공식 명칭은 <남산관광일주도로>이다.

○ 남산부석⁷⁵

바위 절벽 위에 부처님 머리 같은 큰 바위가 얹혀 있어 마치 대좌불(大坐佛) 처럼 보인다. 부처님 머리가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아 부석(浮石)이라 부른다. 이 부근의 바위들은 불상처럼 생긴 모양이 많다. 여래상·보살상·나한상·좌상·입상 등 갖가지 모습의 부처님들로 산봉우리가 가득 차 있으니, 아래서 쳐다보면 하늘 세계의 부처님 궁전 같고, 올라가면서 바라보면 부처님 세계로 올라가는 것 같고, 올라가서 앉아보면 스스로 부처가 되어 부처님 나라에 있는 듯하니, 이 산을 부처님들이 머무는 산으로 신앙한 신라 사람이 된 듯하다.



○ 금오정(金鰲亭)⁷²

1966년 남산관광일주도로가 준공된 이후 경주시에서 세운 정자이다. 이곳에서 바라보면 동으로는 토함산 불국사와 조양들, 북으로는 남산의 북쪽 능선, 봉우리들과 신라 천년의 궁성인 월성과 도성, 서로는 단석산과 내남의 가람들이 펼쳐져 보인다.



○ 상사바위⁷³

도로 옆 국사골의 능선에 있는 바위로서, 높이 10여 m 되는 거암인데, 가파른 산위에 있어 더욱 높게 보인다. 바위는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멀리서 보면 할아버지와 소녀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이 바위에는 할아버지와 소녀의 이루지 못한 사랑이 죽어서 변하지 않는 바위로 사랑을 이루고 있다는 애절한 전설이 전해져 온다.



○ 국사곡 삼층석탑⁶⁰ 유형문화재 447호

일주도로의 국사곡 입구에서 계곡을 따라 350m 정도 들어가면, 이정표와 갈림길이 있다. 북쪽에서 흘러오는 개울을 따라 300m 정도 올라가면 계곡에 거대한 2층 축대가 있고, 축대를 지나면 오른쪽 언덕위에 커다란 축대위에 삼층석탑이 솟아 있다. 지금은 거대한 축대를 쌓아 탑의 기반을 받치고 있지만, 주변의 바위들을 보아 본래는 열기설기 쌓여진 돌 무더기 위에 솟아 있는 탑이었을 것이다. 이 탑은 복원 전 북쪽으로 질서정연하게 무너져 있어 인위적으로 파괴된 것을 알 수 있다. 기단 일부와, 1층 탑신괴임과 노반을 새로운 돌로 보충하여 2002년 복원하였다. 3층탑신 윗면에 한 변 14.5cm, 깊이 7.5cm의 방형사리공이 확인되었다. 이 탑은 단층기단인데, 기단의 탕주(撐柱)가 사면 모두 별석으로 조성된 점과 탑 주변으로 2겹의 부석(敷石)을 깐 것이 특이하다. 석탑은 단층기단이고, 옥개석 층급받침이 4단인 점 등으로 보아 9세기 초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탑 주변에는 흩어져 있던 석재들을 정리해 두었는데, 2종의 연화대석으로 보아 2구 이상의 석조불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곳의 절터는 탑 아래와 탑의 오른쪽 개울 건너에 넓은 터가 3단으로 펼쳐져 있고, 긴 축대도 남아 있다.